

	서 평	
--	-----	--

국토연구원 엮음,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공간철학사의 정립을 위한 출발

김용창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

1. 간단한 방담

국토연구원이 학계에서 하지 못한 매우 좋은 일을 하였다. 1997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국토연구원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간 《국토》를 통해 연재한 「공간이론의 산책」에 소개되었던 주요 학자들의 공간이론들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출간한 것이다. 본디 이런 종류의 작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채근하는 끈질긴 노력 없이는 하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국토》 편집진의 노고가 돋보일 수밖에 없다.

1997년 초인가 1996년 말인가에 《국토》 편집을 담당하고 있던 국토연구원의 설문원 선생이 필자와 중부대의 강현수 교수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국토》의 편집체계를 개편하고 싶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 하고 물기에 영화 속의 도시 읽기와 공간이론의 산책 등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시한 적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이미 1999년 도서출판 한울에서 『영화 속의 도시』(구동희 엮음)로 출간되어 나왔고, 이번에 두 번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 모처럼 이루어진 돋보이는 성과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은 몇 가지 점에서 돋보이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51명에 이르는 많은 공간관련 이론가들의 생애와 주요 사상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저작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¹⁾ 필자들에게 따라서는 해당 이론가와 직접 서신을 교환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책 말미에 색인이 첨부되었다라면 공간사상관련 사전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수의 필자들을 발굴하여 집필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집필자의 허명에 집착하지 않고, 해당 이론가를 잘 알고 많은 글들을 독해한 젊은 필자들을 대거 동원함으로써 비교적 최근의 이론전개 및 활동상황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책연구원에서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이론가들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하비, 르페브르, 카스텔, 매시, 테일러, 스콧, 갓디너 등 맑스주의자 또는 좌파적 배경을 가진 이론가들이 일종의 제도권 내에서 조명받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공간계획에서 다양한 견해와 철학을 검토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대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때, 계획가들의 인식론 또는 실천론적 편식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국토》 편집진의 개방성을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간관련 이론적 논의는 물리적 설계부문, 계획부문, 지역개발부문, 산업입지부문, 사회(공간)철학부문 등이 서로 분리된 채

1) 외국의 경우 부티머(Buttimer)라는 지리학자가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담을 통해 자서전적 형식으로 편집한 *The Practice of Geography*(1983, Longman)가 있다. 이 저작은 우리에게 낯선 영미권 이외 유럽 학자들의 사상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녀는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작업을 계속하였다.

로 전개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예 서로를 무시하는 풍조마저 없지 않았다.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각 분야의 주요 이론가들을 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최소한 다른 분야의 관점과 실천적 노력들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3. 51명의 공간이론가들?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은 45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51명의 이론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606쪽 분량의 만만치 않은 책이다. 이 책은 도시구조 및 도시체계이론, 도시사회공간이론, 도시설계이론, 산업입지론, 지역발전이론, 공간인식과 계획이론, 한국의 전통공간이론 등 6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51편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도시구조와 도시체계이론” 편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공간구조론에 초점을 맞추어 튀넨, 크리스탈러, 모리가와, 고트망, 보처트, 테일러, 사센 등 7명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튀넨의 고립국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은 농업입지론과 서비스업 활동의 입지론 분야에서 최고의 고전으로 통하고 있고, 고트망의 메갈로폴리스론과 사센의 세계도시론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테일러의 정치지리학 등 나머지는 비교적 생소하다고 할 수 있다. 모리가와의 도시시스템이론과 보처트의 대도시 변천론은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다. 테일러의 정치지리학은 국가와 세계 체계모니문제에 대해 공간적 스케일(spatial scale)을 도입함으로써 정치학 분야에서도 독자를 갖고 있다.²⁾

다음으로 “도시사회공간이론” 편은 막스 베버, 롤스, 파크, 위스, 카스텔, 렉스와 무어, 손더스, 로간과 몰로치 등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대

2) 참고로 P. 테일러, 『세계 체계모니에 대한 반체제적 대응들』, 《창작과비평》 봄호(통권 99호), 1998.

체로 사회학자들의 도시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로즈킨(Lojkin)에 대한 소개가 빠진 점이 아쉽다. 여기에 소개된 저자들이 대부분 소비의 관점에서 도시를 인식한 반면에 로즈킨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공간 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더스의 경우 개인소유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소유계층’(domestic property class) 논의가 좀더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기 소개된 학자들의 도시사회학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마디 부언하자면, 도시사회학은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를 전후하여 이전의 생태학적 접근과 이후의 신도시사회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신도시사회학은 1970년 바르나(Varna)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사회학자대회에서 경험주의 및 연구 주제의 사소화를 거부하고, 선진산업사회의 도시와 지역 발전 이해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이론적·정치적 이슈로 관심을 되돌리려는 노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제사회학회의 지역·도시발전 사회학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 저널인 《도시 및 지역 연구를 위한 국제 학술지》(IJURR)가 1977년 창간되었다. 이로부터 맑스주의 전통 및 영국 신베버주의 전통의 도시지역연구가 활성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세 번째로 “도시설계이론” 편은 하워드, 코르뷔제, 독시아디스, 하브라켄 등 건축 및 도시 설계 분야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건축설계분야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웬, 푸리에 등과 같이 자본주의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대한 도시설계

3) 이와 같은 도시사회학의 노력 외에도 도시공간문제와 관련한 연구방법론의 전환 노력으로는 현재는 없어진 「환경연구소」(CES) 주최로 1975~1979년 기간 동안 격년제로 할로(Harloe)가 주도한 도시변동과 갈등에 관한 연구모임이 있었고, 카스텔의 문제설정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많은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1973년 11월 런던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경제학자연맹」(CSE)의 “주택정치 경제학 워크숍”은 주택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시도하여 논문모음집의 형태로 결과물을 내놓았다. 1977년 이후에는 기관지인 《자본과 계급》에 성과물들을 발표하였다.

적 조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본 소개에서 다소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는 도시설계와 공간의 사회적 생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비(D. Harvey)의 최근 저작이 도움이 될 수 있다.⁴⁾ 하비는 『희망의 공간』 제8장과 9장에서 도시설계의 문제를 유토피아 공간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비는 좌파들이 유토피아에 관한 모든 논의를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 책에서 그는 그간의 유토피아 논의를 공간적 유토피아와 사회적 과정의 유토피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오웬, 푸리에, 하워드에서 시작하여 최근에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성 찾기운동(new urbanism) 등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은 공간물신론에 빠짐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헤겔과 맑스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유토피아를 제시한 형태이지만 궁극적인 공간적 형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맑스주의적 유토피아는 실천적인 구체성의 확보를 위해서 역사지리적 유물론, 즉 공간성과 장소의 지리와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로 “산업입지론” 편에서는 베버, 뒤쉬, 스미스, 버논, 매시, 스콧, 크루그먼, 포터, 쿠크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전입지론에서부터 신산업지구론 및 지역혁신체제론까지 산업입지분야의 핵심적인 이론적 변화를 균형있게 잘 소개하고 있으며, 집필자들의 해당 이론에 대한 천착도 돋보인다. 크루그먼이나 포터의 논의와 관련하여 비공간적 연구자들이 새로이 공간분야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놓고 공간연구자들이 괜히 들뜨지 말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좋은 점이다.⁵⁾ 다만 지역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아이사드(Isard)의 공간경제론에 대한 소개가 첨부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산업입지론에서

4)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 2001.

5) 크루그먼에 대한 공간적 관점의 독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완적으로 참조하면 유용할 것이다. 정준호, 「폴 그루그만의 신경경제지리학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공간과사회》 13호, 한울, 2000.

중요한 주제이자 이론적 자원인 시장, 계층, 네트워크의 문제와 거래비용의 문제가 제대로 취급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이다.

다섯 번째 주제인 “지역발전이론” 편에는 미르달, 허쉬만, 미야모토, 헤거스트란트, 스토크, 푸트남 등의 이론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 연재된 글들을 모아 편집한 관계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책의 전체 체계에서 가장 영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스토크에 대한 논의는 여섯 번째 주제에 있는 프리드먼의 논의와 더불어 도시설계분야로 옮겨 “도시계획(정책) 및 도시설계” 편으로 편집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개발론의 고전으로서 미르달, 허쉬만과 더불어 페로우(Perrou)의 성장극(거점)이론도 함께 소개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또한 헤거스트란트의 공간확산이론 편은 그의 시간지리학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기든스(Giddens) 등 사회과학계에서 그의 시간지리학이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고전적인 지역개발론, 미야모토의 내발적 발전론과 같은 일종의 중급기술학과의 논의와 균형을 위해서 지역불균등발전론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일찍이 드라이스테일과 와츠(Drysdale & Watts)는 지역불균등 발전의 심화과정에 대해, “때때로 지리학자들은 전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앉아 연기 구름이 불어가는 방향에 넋을 잃고 있는 구경꾼 같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지역불균등발전과 관련해서는 스미드(N. Smith)의 공간생산론, 리피츠(Lipietz)의 공간생산양식접합론, 영국 노동당의 선도적인 개량주의 이론가였던 홀랜드(Holland)의 지역불균등발전론 등을 비롯하여, 한때 미국 남부에서 자결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국내식민지론(internal colonialism), 가치의

6) 시간지리학의 관점에 대해서는 김용창, 『생활공간의 관점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세계화 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도서출판 대운, 1995. 그리고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개념이 갖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김두환 외, 『사회적 자본개념의 딜레마』, 한국공간환경학회 2001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1을 참조.

지리적 이론론, 지역장기과동론, 1990년대의 유연적 축적체제론 및 유연 전문화론 등 다양한 이론적 자원이 있다.⁷⁾

여섯 번째 주제인 “공간인식과 계획이론”에서는 비달, 보벡, 레오폴드, 투안, 갓디너, 르페브르, 하비, 프리드만, 미첼 등의 논의를 수록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공간철학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는 편이다. 프리드만과 하비를 제외하고는 공간관련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사람들이다. 특히 하비를 제외하고는 비달, 보벡, 투안 등의 지리학자들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이나 지리사상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르페브르의 경우는 일상생활에 대한 국내의 관심으로 새삼 주목을 받은 바 있으나, 공간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좌파의 공간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프랑스 공산당의 이론가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공간환경학회』를 통해서 소개되었다. 갓디너의 사회공간적 접근은 하비의 자본투자전환론(capital switching)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간생산과정에서 일종의 부동산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첼은 『비트의 도시』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의 정보화관련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는 건축 및 도시공간 분야의 디지털 전도사라고 할 수 있다. 레오폴드는 환경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⁸⁾

공간철학과 관련하여 엔트리킨(Entrikin)이나 렐프(Relph)의 인본주의 또는 현상학적 관점의 장소 및 장소성과 관련한 저작들, 행태주의 접근, 실증주의 접근 등이 빠져 있는 것이 편집체계의 균형감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토지 및 환경윤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1960년대에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내에 많은 독자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헨리 조지(George)의 『진보와 빈곤』이 수록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⁹⁾

7)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르케, 2000의 제3부 「지역불균등발전의 전개과정」, 제4부 「유연적 축적과 지역의 재구조화」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8) 이강원, 「環境倫理에 있어서 總體主義의 解釋에 관한 批判的 研究: Aldo Leopold의 the Land ethic에 관한 論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공간이론” 편에서는 도선, 이중환, 정상기, 신경준, 정약용, 김정호, 최남선, 풍수지리론 등을 수록하고 있다. 그동안 공간이론에서 소외되어왔던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이론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풍수지리와 지도학 분야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약용 등 인물사상사의 관점에서는 공간적 사고가 역사학이나 사회경제사의 관점보다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4. 몇 가지 한계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이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은 우리나라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관계상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영미계통의 학자들에 대한 편식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공간이론가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최소한 제3세계의 공간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학자들에 대한 소개는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길버트(Gilbert), 구글러(Gugler), 슬레이터(Slater), 터너(Turner), 브롬리(Bromley)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편집체계상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분야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공간정치학 및 문화적 접근, 환경이론에 대한 인물들이 빠져 있는 것이 커다란 흠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잘 짜여진 편집방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환경이론에 대한 소개는 국내에서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매킨더(Mackinder), 왈러스틴(Wallerstein) 등의 지정학, 애그뉴(Agnew)

9) 헨리 조지의 주저인 *Progress and Poverty*에 대한 국내 번역서로는 장찬섭 역, 『진보와 빈곤』, 보문각, 1961; 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등이 있다.

등의 장소정치학, 콕번(Cockburn)의 지방국가론, 글라켄(Glacken)의 문화환경론, 코스그로브(Cosgrove), 주킨(Zukin) 등의 역사유물론적 경관론이나 포스트포던 도시경관론 등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저자 또는 저작들이다. 독창적인 관점의 제시나 이론적 기여가 불분명한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크루그먼, 막스 베버, 포터 등 공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비공간연구자들에게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좋은 기획의도였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사회경제사를 전개하는 데 공간적 관점을 내포적으로 소화함으로써 확고한 이론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폴라니(Polanyi), 브로델(Braudel)의 사상도 소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은 향후 공간철학사전 또는 공간철학을 구상하는 데 여러 모로 토대가 될 수 있는 책이면서 다양한 분과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연구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통의 의사소통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간이론의 사상가들』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엮어낸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지리연구회가 엮어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1993, 민음사) 등을 함께 읽으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